

첨단학과 수시 경쟁률 '주춤'... 논술전형만 71.8대 1 강세

진학사, 서울 주요대 경쟁률 분석
고려대·서울대 등 6개 대학 하락
교과·종합 전형 확대에 분산 양상
내신 부담 회피, 논술 자신감 쏠려



2026학년도 수시모집에서 반도체·인공지능·데이터사이언스 등 첨단학과 및 계약학과의 경쟁률이 교과·종합전형은 하락하고, 논술전형은 상승하는 양상을 보였다. 내신과 학생부에 대한 불안감 속에, 상위권 학생들이 수능·논술 역량으로 승부할 수 있는 전형으로 몰린 결과로 분석된다.

17일 진학사에 따르면, 고려대,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한양대 등 서울 6개 대학 첨단·계약학과의 2026학년도 수시 경쟁률은 전년도보다

모두 낮게 나타났다. 전체 평균 경쟁률은 19.88대 1로,

2025학년도(21.34대 1)에 비해 1.46%p 떨어졌다. 대학별로는 ▲고려대 19.16대 1→17.78대 1 ▲서강대 36.21대 1→32.80대 1 ▲서울대 9.98대 1→7.63대 1 ▲성균관대 27.02대 1→24.80대 1 ▲연세대 16.44대 1→13.25대 1 ▲한양대 34.42대 1→30.92대 1로 집계돼, 모든 대학에서 경쟁률이 하락했다.

첨단·계약학과는 취업 전망과 미래 성장성을 바탕으로 수험생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경쟁률 흐름은 일반 학과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전형유형별 경쟁률을 살펴보면 학생부교과전형은 9.15대 1로, 전년도(13.02대 1)보다 3.87%p 하락했다. 올해 수험생 증가로 상당 지원을 기피하는 경향이 첨단학과 및 계약학과에서도 동

일하게 나타난 것이다. 전체 지원인원은 감소한 반면, 선발인원과 모집단위는 증가하면서 수요가 여러 대학으로 분산된 영향도 있었을 것으로 입시계는 보고 있다.

학생부종합전형도 14.13대 1로 전년(14.60대 1)에 비해 소폭 떨어졌으나, 지원 인원은 증가했다. 지원자가 늘었음에도 모집 인원이 크게 확대되면서 전체 경쟁률은 낮아진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기존에 운영되던 전형과 모집단위에서는 경쟁률이 전반적으로 하락했고, 성균관대 바이오신약·규제과학과, 한양대 면접형(공과대학 신설) 등 신설된 모집단위와 전형에 지원이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소장은 "이는 신설 학과·전형에 대한 기대 심리가 수험생들에게 영향을 미친 결

과"로 분석했다.

반면 논술전형은 71.77대 1로 지난해 67.03대 1보다 오히려 4.74%p 상승해 뚜렷한 대조를 보였다. 내신 성적은 불리하지만 수능최저 충족에 자신있는 수험생들이 '최저 충족 가능성이 높으니 도전할 만하다'는 판단으로 논술전형을 적극적으로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우연철 소장은 "첨단학과나 계약학과는 미래 전망이 밝아 수험생 선호가 높지만, 실제 지원에서는 안정 지원 심리가 크게 작용했다"며 "결국 내신·비교과 부담이 적고 수능 성적만 확보하면 유리한 논술전형으로 수험생이 몰리면서 논술전형에서만 경쟁률 상승이 나타난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교원 정신건강 지원 '선생님 동행 50인' 가동

서울교육청, 법 시행 맞춰 사업 출범
상담·치유 프로그램으로 소진 예방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오는 19일 '교원지위법' 제29조의2 시행에 맞춰,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선생님 동행 50인' 마음다터 사업을 출범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2월 학생 마음건강 지원 협약을 맺은 바 있는 국립정신건강센터·한국학교정신건강의학회와 협력을 교원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교원들이 낯설게 느껴왔던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에 대한 장벽을 낮추고, 학교 현장에 친화적인 전문 의료기관과 전문의 명단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교원의 의료기관 접근성

을 높이고 상담·진료 참여를 지원, 교원 정신건강 회복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

서울시교육청은 협약에 따라 ▲교원 상담·진료 지원 ▲교원·교직원 보호 자문 ▲학교교육력 회복을 위한 예방·치유 프로그램 운영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정신건강 전문성 향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교원·교직원의 회복을 지원하고 학생 학습권 보호, 학부모 신뢰 확보, 학교 안정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는 19일에는 한국학교정신건강의학회와 함께 교원 소진 예방·치유 연수를 연다. 단순 체험형을 넘어 교원 소진 요인을 분석하고 현장 사례를 검토하

며, 전문의 강의를 통해 업무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한다. 또한 사례별 컨설팅을 통해 예방·치유 프로그램이 학교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향후에는 '마음다터'와 협력해 교육활동보호 긴급지원팀 SEM119의 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정신건강 증진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학교 현장의 모든 구성원이 건강해야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고, 교원이 안정적으로 수업할 수 있다"며 "교원지위법 시행일에 맞춰 실효성 있는 체계를 마련해 교육활동 전반에 공백 없는 보호와 지원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현진 기자

서울시,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보급

고려대 생명과학대학과 공동 연구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대학이 서울시농업기술센터와 16일 오전 10시 센터 세미나실에서 치유농업 확산을 위한 '치유농업 분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17일 서울시와 고려대에 따르면, 양 기관은 연구 협력을 통해 시민의 건강 회복·유지·증진에 기여하고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함께 개발·보급한다.

이날 협약식에는 조상태 서울시농업기술센터 소장과 조용성 고려대 생명과학대학 학장 등 관계자 20명이 참석했으며, 양 기관은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치유농업 확산과 농업을 통한 건강 증진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 사례 모델화 및 연구 협력 지원 ▲농업 분야 전문 인재 육성을 위한 상호 교류 ▲치유농업 프로그램 교류 및 연계사업 추진 등이다.

서울시와 고려대는 앞으로도 긴밀한 실무 협력을 통해 치유농업 프로그램의



(왼쪽부터) 조상태 서울시농업기술센터 소장, 조용성 고려대 생명과학대학 학장. /서울시

학술적 연구와 과학적 효과 검증, 인재 양성 및 현장 적용 확대 등을 함께 추진함으로써, 치유농업의 지속적 확산과 실질적 성과 창출에 힘쓸 계획이다.

조상태 서울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시민의 정신·신체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는 치유농업 프로그램 연구협력과 현장 실증으로 치유농업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고 더 많은 서울 시민이 치유농업의 가치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우이신설 연장선' 2032년 준공 목표

서울시, 실시설계 계약 체결 공사 착수
4690억 투입해 솔밭공원~방학역 연결

오랜 기간 표류해 온 '우이신설 연장선' 사업이 마침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서울시는 우이신설 연장선 건설사업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우선시공분 공사와 토목·건축·궤도·시스템 등 전 분야에 걸쳐 실시설계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올해 8월 기본설계 적격심의를 통과하고 선정된 'HL디앤아이한라 컨소시엄'과 지난 16일 실시설계를 포함한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우이신설 연장선' 사업은 초기엔 기존 노선에 연장선을 통합하는 민자사업으로 추진됐으나 2020년 재정사업으로 전환되는 등 장기간 진통을 겪었지만 이



우이신설 연장선 노선도.

번 계약 체결로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 동북권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교통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게 됐다.

우이신설 연장선은 현재 운영 중인 우이신설선 솔밭공원역과 1호선 방학역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총 연장 3.94 km 정거장 3개소(방학역 환승 포함)가

신설된다. 총 사업비 4690억원이 투입되며 전체 공사 기간은 공적정성 심의를 거쳐 79개월로 산정, 오는 2032년 준공을 목표로 진행된다.

이번에 체결된 계약은 실시설계와 병행하여 진행되는 우선시공분 공사로, 시는 내년 9월까지 ▲우선시공분 공사 ▲실시설계 ▲각종 영향 평가를 완료하고 설계 기간 중 지반침하 위험을 막기 위해 지하안전영향평기도 철저히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연장선이 개통되면 우이신설선과 1호선 간 직접 환승이 가능해져 동북권 주민의 교통 불편 해소, 환승 편의 개선 등 대중교통 이용 전반의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대희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오랫동안 기다려온 동북권 주민의 바람에 부응하고 대중교통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이신설 연장선 사업의 안전 및 품질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오늘의 날씨

9월 18일 (木) 음력 : 7월 27일

수도권 날씨 20~26°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지역별 날씨: 연천 17/25, 동두천 18/25, 가평 18/24, 파주 17/26, 서울 20/26, 양평 19/25, 인천 19/27, 수원 19/26, 용인 19/26, 평택 19/25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메트로 한줄뉴스



▲中 민간기업 재사용 로켓 '텐룽3' 1000t 추력 시험 성공
▲엔비디아, 중국 전용 AI칩 RTX 6000D 출시... 시장 미온적 반응 /사진 뉴시스

▲'슈퍼 마리오' 드라기, EU 경제 경고... "상황 파악 못 하고 있어"
▲관세 영향에 8월 대미 무역 흑자 50% ↓... 자동차 수출도 28% ↓

▲EU, 인니와 다음 주 무역 협정 체결... 美·中 의 존도 다각화
▲네타냐후, 이달 말 백악관 방문... "트럼프가 초청"